

<본 보도자료는 공시사항으로 공시확인 후 기사반영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남제약(053950), 2018년 1분기 실적 발표]

2018.1Q 영업이익 6억 원... 전년동기비 61.8% 증가 '호실적'

- ▶ 당기순이익은 파생상품평가손실 반영돼 적자전환... 향후 전환사채 주식 전환으로 해소 전망
- ▶ 국민비타민 '레모나' 신규 모델 선정 등 적극적 마케팅 통해 하반기 매출 증대 전망

<2018-05-30> 경남제약이 경영권 이슈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경신했다.

비타민 명가 경남제약(053950)이 공시를 통해 2018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94억 7천만 원, 영업이익 5억 8천만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4%, 61.8% 상승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파생상품평가손실 124억 원이 반영되며 94억 7천만 원 적자를 기록했다.

경남제약 회사관계자는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에도 매출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등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있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했다. 다만, 연초 주가 급등에 따른 전환사채 평가손실이 반영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경영개선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파생상품평가손실 이슈는 곧 해결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남제약은 국민비타민 '레모나'를 통한 매출 성장을 기대 중이다. 최근 '아이린'을 레모나의 신규 모델로 선정하고 지상파, 케이블 등 여러 매체에서 활발한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어서 이를 통한 하반기 매출 증대가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레모나의 중국 진출을 위한 중국법인 설립이 완료됨에 따라 중국의 주요 거래처와 계약을 협의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 해외 진출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 또한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현재 회사는 경영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경영개선계획 실행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주력 제품의 효과적인 마케팅과 중국 진출 가속화 등 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지속 힘쓰고 있다"며 "지난 60여년 간 소비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만큼 앞으로도 신제품 라인업 확대, 해외 사업 강화로 지속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전했다.

[참고자료]

<경남제약 2018년 1분기 실적>

단위 : 백만원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YoY
매출액	9,473	8,739	8.4% ↑
영업이익	584	361	61.8% ↑
당기순이익	-9,471	96	적자전환

주 : 당기순이익에는 추가급등에 의한 파생상품평가손실 124억 원 반영